

여고생의 인성과 동적가족화(KFD)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Figure in Kinetic Family Drawing among High-school Girls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객원교수 김 갑 숙*

강 사 전 영 숙**

Major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Yeungnam University

Guest Professor : Kim, Gab-Sook

Lecturer : Jeon, Young-Sook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figures in Kinetic Family Draw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rawer's personality (neurosis, intellectual openness, friendliness, extroversion, sincer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40 high-school girls. The Five Factors Personality Test was conducted to assess personality factors and the Kinetic Family Drawing Test was used to obtain data on drawing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n subcategories such as face, countenance, eyes, mouth, inclusion of body, hands, posture, erasure, exertion of pressure on the paper, and lin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neurosi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untenance, eyes, posture, exertion of pressure on the paper, and lin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extroversion.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e, countenance, eyes, and posture, according to the degree of opennes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rasure and lin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riendliness.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untenance and posture according to the degree of sincerity.

This study proved that among the personality factors, neurosis is most highly related with characteristics of persons drawn in the Kinetic Family Drawing, whereas countenance and posture in the drawing were highly indicative of personality factors.

▲주요어(Key Words) : 신경증(neurosis), 지적개방 (intellectual openness), 친화성(friendliness), 외향성(extroversion), 성실성(sincerity), 인물상의 특성(characteristics of drawn human figure)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성이란 각 개인이 보이는 고유한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

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관성을 나타내게 된다(홍경자, 2004). 홍경자(2004)는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 소인, 환경적 체험, 개인의 가치관 및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환경적 체험의 요인에는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시대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겠지만,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통해 인성이 형성되고 발달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의 초기 경험은 아동기의 성격발달, 대인관계

* 주 저 자 : 김갑숙 (E-mail : pinakim@yumail.ac.kr)

** 교신저자 : 전영숙 (E-mail : bori58@hanmail.net)

그리고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Bornstein & O'Neill, 1992),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은 건강한 성격형성과 유지 및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문희·장연집·정정옥, 1999)는 것이다.

Bowen(1975)은 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 자기 주위의 사람 그리고 현재의 자기 자신을 있게 한 여러 세대에 걸친 과거와 떼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문제행동은 그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 그가 가족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울이나 불안 등은 그가 속한 가정의 불안정한 체계가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장혁표·제석봉·김정택 역, 1995) 개인이 나타내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성특성과 개인의 가족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개인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또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그림 검사로 동적가족화(KFD)를 들 수 있다. 동적가족화는 가족화에 운동성과 목적성을 부여한 투사법의 일종으로 가족구성원 각각의 특징적 행동과 성격이 잘 나타나며, 기능적이고 능동적인 단위로서의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잘 표현되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평가도구로 진단 및 치료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다(Sims, 1974; 日比, 1974, 1985; 加藤孝正, 1987; Burns & Kaufman, 1970, 1972).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그림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그리는 사람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나 감정을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그리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이다. 이와 같이 동적가족화에는 개인의 인지적 구조가 투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린 사람의 성격이나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김동연, 1998).

개인의 성격특성과 동적가족화에 대한 선행연구 몇 가지를 고찰해 보면 최외선, 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수준과 어머니의 눈, 얼굴, 표정, 어머니상 생략, 자신과 아버지의 크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이 어머니의 눈과 얼굴 내부를 생략하고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자신과 아버지상을 적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최선남(1995)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신의 에너지, 모의 팔길이, 모의 행위, 그림의 조화, 다른 인물상에 대한 자기상의 크기, 인물상이 지면의 왼쪽에 위치, 부정적 내용, 모의 얼굴형태, 안물상이 오른쪽에 위치 등의 변인임을 밝혔다. 또 최선남, 최외선, 손현숙(1995)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나타내지 않는 집단과 우울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각각 동적가족화의 하위 차원 중 인물상의 행위, 특성, 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차원에서는 아

버지의 행위에서 우울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물상의 특성 변인과는 두 집단 모두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김갑숙, 전영숙(2004)의 연구에서는 자신 및 부모의 얼굴내부 표현과 신경증 및 분노, 우울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부위별 표현 즉 눈, 입, 손의 표현은 신경증, 분노,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필압과 선도 신경증, 불안 및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적가족화는 개인의 자아개념, 우울, 신경증과 그 하위요인인 우울, 분노, 불안 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적가족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지각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특성과 동적가족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인성의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갑숙, 전영숙(2004)의 연구에서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 신경증 및 그 하위요인인 우울, 분노, 불안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으나, 이것 역시 동적가족화 진단기준의 한 영역과 인성요인의 한 부분인 신경증 영역에 국한되어있어 인성의 다양한 측면과 동적가족화의 관계를 충분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의 여러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인물상의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등과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는데, 외향성은 삶의 만족과 정적상관을 보이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삶의 만족과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현지, 이윤주(2005)는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경, 이기학(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과 긍정적 정서임을 밝혔다. 청소년기는 특히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송명자, 1996)이다. 청소년기는 제2차 성특징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신체적 발달로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로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이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므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겪기 쉽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덜 주장적이고 반추성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두 배 정도 우울경향이 높다(이봉건 역, 1977)고 한다. 가족의 애정적인 지지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는 청소년의 우울을 억제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이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김성일, 정용철, 2001; 최선남, 최외선, 1995; Downey & Coyne, 1990)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고생들의 인성과 그들이 직접 그린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인

물상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신경증, 외향성, 지적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같은 5가지 인성요인과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인성과 동적가족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인성특성을 파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문제행동이 있을 경우 치료장면에서 효과적인 치료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에서 부적응 학생을 발견하여 학생들의 적응을 돕게 되고, 나아가 학업지도와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고생의 5 가지 인성요인과 동적가족화(KFD)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이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인성의 신경증 요인에 따라 KFD의 인물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인성의 외향성 요인에 따라 KFD의 인물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인성의 지적개방성 요인에 따라 KFD의 인물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인성의 친화성 요인에 따라 KFD의 인물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다섯째, 인성의 성실성 요인에 따라 KFD의 인물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인성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 개인의 심리적 행위적인 성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도순 외 2인(2004)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표준화 인성검사에서 분류한 5가지 요인(신경증, 외향성, 지적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특성을 지칭하고 있다.

2) 인물상의 특성

동적가족화의 진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물상의 행위(action), 양식(styles), 상징(symbol), 역동성(dynamics), 인물상의 특성(human Figure characteristics)의 5개의 진단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외선, 정현희(2004)가 제시한 인물상의 특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 4월에 실시하였다. 10개 학급의 35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제가 미비한 11명을 제외한 340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
| 형제수 | 1명 | 27(7.9) | 종교 | 불교 | 77(22.8) |
| | 2명 | 204(60.0) | | 가톨릭 | 21(6.2) |
| | 3명 | 91(26.8) | | 기독교 | 102(30.2) |
| | 4명이상 | 18(5.3) | | 무교 | 134(39.6) |
| | | | 기타 | 4(1.2) | |
| 부학력 | 중학교 졸업 | 46(13.9) | 모학력 | 중학교 졸업 | 67(20.1) |
| | 고등학교 졸업 | 230(69.5) | | 고등학교 졸업 | 239(71.8) |
| | 대학교 졸업 | 51(15.4) | | 대학교 졸업 | 27(8.1) |
| | 대학원이상 | 4(1.2) | | | |
| 부만족도 | 만족 | 164(49.5) | 모만족도 | 만족 | 220(65.9) |
| | 보통 | 113(45.9) | | 보통 | 92(27.5) |
| | 불만족 | 54(4.5) | | 도 | 불만족 |

2. 측정도구

1) 동적가족화

동적가족화(KFD) 검사는 학급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용지를 배부하고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Burn & Kaufman, 1970, 1972).” 라고 말하고, 지시한 내용 외에 나오는 질문에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자유입니다.”로 대답하였다. 준비물은 A4용지(210×297mm)와 4B연필, 지우개 등이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그림 속의 인물상을 그린 순서, 각각의 인물상이 누구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략된 사람은 있는지, 가족 외에 첨가된 사람이 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진단영역은 일반적으로 인물상의 행위(action), 양식(styles), 상징(symbol), 역동성(dynamics), 인물상의 특성(Figure characteristics)의 5개의 진단영역으로 나누고 있다(Burns & Kaufman, 1970, 1972; Knoff & Prout, 1988; McGregor, 1978; 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최외선, 정현희, 2004). 본 연구에서는 ‘인물상의 특성’ 영역에 국한해서 진단하였는데, 인물에는 신체적 결함이나 심리적 문제 및 좌절감 등이 나타난다. 머리, 얼굴, 손, 발, 몸통의 각 부분에 대해 자아 이미지가 표현된다. 또한 신

체 각 부분의 균형이나 표현의 모양, 모습, 복잡 등에서도 마음 상태의 추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물상의 특성은 내담자의 심리적 경향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인물상의 특성은 얼굴내부표현, 얼굴표정, 눈, 입, 신체, 손, 자세경직, 신체완성도, 필압, 선의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루었다(최외선, 정현희, 2004).

동적가족화의 각 항목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미술치료사 2명이 채점을 하였다. 그 중 40명의 그림을 표집하여 2명의 채점자가 각각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로 측정된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r=.84$ 로 나타났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의 채점자가 논의를 거친 후 채점을 하였다.

2) 인성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인성검사는 박도순 등(2004)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표준화검사로서 '5요인 인성검사'이다. 이 검사는 다섯 가지 요인-신경증, 외향성, 지적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20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해야 하며,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이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 .76$ 로 나타났다. 인성요인의 반응특성 결과 백분위 25 이하로 나왔으면 특성이 낮다고 보고, 26에서 75의 범위에 있으면 정상적인 범주로 보며, 76 이상이면 특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3. 자료분석방법

다섯 가지 요인(신경증, 외향성, 지적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동적가족화(KFD)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이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인성검사 5요인과 KFD의 인물상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성검사 5요인 즉, 신경증, 지적개방,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에 따라 인물상의 특성 10가지 하위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인성검사 5요인은 점수에 따라 25점 이하의 집단은 낮은 집단으로, 26점-75점은 정상집단으로, 76점 이상의 집단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인물상의 특성은 얼굴, 얼굴표정, 눈, 입, 신체완성도, 손, 자세, 지움, 필압, 선 등 10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경증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신경증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신경증의 수준에 따라 얼굴, 얼굴표정, 눈, 입, 신체, 손, 자세, 지움, 필압, 선 등 10가지 하위요인 모두 부

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에서는 자신($\chi^2=47.83, p<.001$), 어머니($\chi^2=42.41, p<.001$), 아버지($\chi^2=37.84,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집단에서는 얼굴내부 표현을 생략 없이 다 그리는 비율이 높았고, 신경증이 낮은 집단은 눈, 코, 입만 그리는 비율이, 신경증이 높은 집단은 눈, 코만 그리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얼굴표정에서는 아버지의 표정($\chi^2=13.83,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 집단보다 아버지가 무표정하거나 비우호적인 표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눈에서는 자신($\chi^2=42.20, p<.001$), 어머니($\chi^2=19.69, p<.01$), 아버지($\chi^2=13.32, p<.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낮은 집단과 정상집단에서는 눈을 강조하지 않은 비율이 신경증이 높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신경증이 높은 집단에서는 눈을 강조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입에서는 자신($\chi^2=40.40, p<.001$), 어머니($\chi^2=35.03, p<.001$), 아버지($\chi^2=33.13,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낮은 집단과 정상집단에서는 입을 강조하지 않은 비율이 신경증이 높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신경증이 높은 집단에서는 입을 강조하거나 입을 생략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손에서는 자신($\chi^2=29.88, p<.001$), 어머니($\chi^2=36.68, p<.001$), 아버지($\chi^2=29.51,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신경증이 낮은 집단은 타 집단과 비교하여 손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상집단에서는 손을 강조한 비율이 높았고, 신경증이 높은 집단은 손을 생략하거나 감추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자세에서는 자신($\chi^2=82.11, p<.001$), 어머니($\chi^2=87.69, p<.001$), 아버지($\chi^2=81.79,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낮은 집단은 자세가 경직되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정상집단에서는 경직 비율과 경직되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였고, 신경증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세가 경직된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신체완성도에서는 자신($\chi^2=26.59, p<.001$)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낮은 집단과 정상집단에서는 발까지 다 그린 경우가 70%의 수준이었으나 신경증이 높은 경우는 발까지 그린 비율이 49%였고, 몸통까지만 그린 비율이 28%로 나타나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신체완성도가 낮았다.

지움에서는 자신($\chi^2=10.88, p<.05$), 아버지($\chi^2=15.8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신과 아버지 모두 신경증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움 흔적이 없는 경우가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정상집단과 신경증이 높은 집단은 신경증이 낮은 집단보다 1번 정도 지움 경우가 많았다.

필압에서는 자신($\chi^2=22.49, p<.001$), 어머니($\chi^2=29.20, p<.001$), 아버지($\chi^2=28.03,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필압이 보통인 경우가 많았으나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타 집단보다 필압이 약한 비율이 높았다.

선에서는 자신($\chi^2=33.49, p<.001$), 어머니($\chi^2=38.62, p<.001$),

아버지($\chi^2=34.68, p<.001$)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경증이 낮은 집단과 정상집단에서는 선을 한 번에 그린 비율이 높았으나,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선을 여러 번에 걸쳐 긋는 경우가 타 집단보다 월등히 많았다.

<표 2> 신경증과 인물상의 특징

| 신경증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자신 | 굴내부없음 | 3(4.3) | 14(10.6) | 4(5.1) | $\chi^2=47.83^{***}$ df=8 |
| | 눈만 있음 | 2(2.9) | 2(1.5) | 4(5.1) | |
| | 눈, 코(입) | 5(7.1) | 27(20.5) | 36(45.6) | |
| | 눈, 코, 입 | 35(50.0) | 39(29.5) | 26(32.9) | |
| 어머니 | 굴내부없음 | 4(5.4) | 9(6.9) | 7(8.1) | $\chi^2=42.41^{***}$ df=8 |
| | 눈만 있음 | 3(4.1) | 3(2.3) | 6(7.0) | |
| | 눈, 코(입) | 7(9.5) | 26(19.8) | 36(41.9) | |
| | 눈, 코, 입, 귀 | 23(31.1) | 50(38.2) | 8(9.3) | |
| 아버지 | 굴내부없음 | 3(4.6) | 11(8.9) | 6(6.9) | $\chi^2=37.84^{***}$ df=8 |
| | 눈만 있음 | 3(4.6) | 1(.8) | 4(4.6) | |
| | 눈, 코(입) | 6(9.2) | 23(18.5) | 31(35.6) | |
| | 눈, 코, 입, 귀 | 27(41.5) | 32(25.8) | 34(39.1) | |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3(4.3) | 9(6.9) | 8(9.3) | $\chi^2=9.12$ df=6 |
| | 비우호적 | 0(.0) | 4(3.1) | 6(7.0) | |
| | 무표정 | 16(22.9) | 42(32.1) | 29(33.7) | |
| | 우호적 | 51(72.9) | 76(58.0) | 43(50.0)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4(5.4) | 9(6.9) | 8(9.3) | $\chi^2=9.12$ df=6 |
| | 비우호적 | 1(1.4) | 4(3.1) | 6(7.0) | |
| | 무표정 | 17(23.0) | 42(32.1) | 29(33.7) | |
| | 우호적 | 52(70.3) | 76(58.0) | 43(50.0)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3(4.6) | 11(8.9) | 6(6.9) | $\chi^2=13.83^*$ df=6 |
| | 비우호적 | 0(.0) | 5(4.0) | 8(9.2) | |
| | 무표정 | 18(27.7) | 34(27.4) | 33(37.9) | |
| | 우호적 | 44(67.7) | 74(59.7) | 40(46.0) | |
| 자신 | 생략 | 3(4.3) | 14(10.6) | 4(5.1) | $\chi^2=42.20^{***}$ df=4 |
| | 강조 | 4(5.7) | 4(3.0) | 24(30.4) | |
| | 강조없음 | 63(90.0) | 114(86.4) | 51(64.6) | |
| 어머니 | 생략 | 4(5.4) | 9(6.9) | 8(9.3) | $\chi^2=19.69^{**}$ df=4 |
| | 강조 | 5(6.8) | 12(9.2) | 23(26.7) | |
| | 강조없음 | 65(87.8) | 110(84.0) | 55(64.0) | |
| 아버지 | 생략 | 3(4.6) | 11(8.9) | 7(8.0) | $\chi^2=13.32^*$ df=4 |
| | 강조 | 3(4.6) | 12(9.7) | 19(21.8) | |
| | 강조없음 | 59(90.8) | 101(81.5) | 61(70.1) | |
| 자신 | 생략 | 3(4.3) | 18(13.6) | 8(9.9) | $\chi^2=40.40^{***}$ df=4 |
| | 강조 | 1(1.4) | 4(3.0) | 20(24.7) | |
| | 강조없음 | 66(94.3) | 110(83.3) | 53(65.4) | |
| 어머니 | 생략 | 5(6.8) | 14(10.7) | 16(18.6) | $\chi^2=35.03^{***}$ df=4 |
| | 강조 | 3(4.1) | 5(3.8) | 20(23.3) | |
| | 강조없음 | 66(89.2) | 112(85.5) | 50(58.1) | |

| 신경증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입 | 아버지 | 생략 | 2(3.1) | 15(12.1) | $\chi^2=33.13^{***}$ df=4 | |
| | | 강조 | 1(1.5) | 5(4.0) | | 19(22.1) |
| | | 강조없음 | 62(95.4) | 104(83.9) | | 55(64.0) |
| 신체완성도 | 본인 | 머리 | 4(5.1) | 5(3.4) | 7(6.7) | $\chi^2=26.59^{***}$ df=6 |
| | | 몸통까지 | 8(10.1) | 14(9.7) | 20(19.2) | |
| | | 다리까지 | 8(10.1) | 26(17.9) | 17(16.3) | |
| | 어머니 | 머리 | 4(5.1) | 5(3.4) | 7(6.7) | $\chi^2=10.46$ df=6 |
| | | 몸통까지 | 8(10.1) | 14(9.7) | 20(19.2) | |
| | | 다리까지 | 8(10.1) | 26(17.9) | 17(16.3) | |
| 아버지 | 발까지 | 59(74.7) | 100(69.0) | 60(57.7) | $\chi^2=8.65$, df=6 | |
| | 머리 | 3(4.1) | 5(3.6) | 4(4.0) | | |
| | 몸통까지 | 8(11.0) | 15(10.7) | 21(20.8) | | |
| 자신 | 다리까지 | 6(8.2) | 23(16.4) | 13(12.9) | $\chi^2=29.88^{***}$ df=6 | |
| | 발까지 | 56(76.7) | 97(69.3) | 63(62.4) | | |
| | 생략 | 12(15.2) | 14(9.2) | 18(16.7) | | |
| 손 | 어머니 | 감취짐 | 6(7.6) | 26(17.0) | 31(28.7) | $\chi^2=36.68^{***}$ df=6 |
| | | 있다 | 39(49.4) | 58(37.9) | 46(42.6) | |
| | | 강조 | 22(27.8) | 55(35.9) | 13(12.0) | |
| | 아버지 | 생략 | 8(10.1) | 14(9.2) | 20(18.5) | $\chi^2=29.51^{***}$ df=6 |
| | | 감취짐 | 11(13.9) | 23(15.0) | 35(32.4) | |
| | | 있다 | 38(48.1) | 59(38.6) | 43(39.8) | |
| 자신 | 강조 | 22(27.8) | 57(37.3) | 10(9.3) | $\chi^2=82.11^{***}$ df=2 | |
| | 생략 | 14(17.7) | 25(16.4) | 20(18.5) | | |
| | 감취짐 | 8(10.1) | 22(14.5) | 36(33.3) | | |
| 어머니 | 있다 | 37(46.8) | 58(38.2) | 41(38.0) | $\chi^2=87.69^{***}$ df=2 | |
| | 강조 | 20(25.3) | 47(30.9) | 11(10.2) | | |
| | 경직 | 16(20.5) | 84(55.6) | 91(87.5) | | |
| 아버지 | 경직 없음 | 62(79.5) | 67(44.4) | 13(12.5) | $\chi^2=81.79^{***}$ df=2 | |
| | 경직 | 14(17.7) | 52(35.9) | 86(82.7) | | |
| | 경직 없음 | 65(82.3) | 93(64.1) | 18(17.3) | | |
| 자신 | 아버지 | 경직 | 14(19.4) | 66(47.1) | 88(87.1) | $\chi^2=10.88^*$ df=4 |
| | 경직 없음 | 58(80.6) | 74(52.9) | 13(12.9) | | |
| | 3번이상 | 0(0) | 1(7) | 0(0) | | |
| 본인 | 1-2번 | 4(5.1) | 30(19.9) | 21(20.2) | $\chi^2=9.03$ df=4 | |
| | 혼적없음 | 74(94.9) | 120(79.5) | 83(79.8) | | |
| | 3번이상 | 0(0) | 1(7) | 0(0) | | |
| 어머니 | 1-2번 | 4(5.1) | 21(14.5) | 20(19.2) | $\chi^2=15.84^{***}$ df=4 | |
| | 혼적없음 | 75(94.9) | 123(84.8) | 84(80.8) | | |
| | 3번이상 | 1(1.4) | 1(7) | 0(0) | | |
| 아버지 | 1-2번 | 0(0) | 22(15.7) | 19(18.3) | $\chi^2=22.49^{***}$ df=4 | |
| | 혼적없음 | 72(98.6) | 117(83.6) | 82(81.2) | | |
| | 약함 | 0(0) | 3(2.0) | 11(10.6) | | |
| 필요 | 본인 | 보통 | 76(97.4) | 147(97.4) | 87(83.7) | $\chi^2=22.49^{***}$ df=4 |
| | 강함 | 2(2.6) | 1(7) | 6(5.8) | | |

| 신경증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필압 | 어머니 | 약함 | 0(0) | 2(1.4) | 12(11.5) |
| | | 보통 | 77(97.5) | 143(98.6) | 86(82.7) |
| | | 강함 | 2(2.5) | 0(0) | 6(5.8) |
| | 아버지 | 약함 | 0(0) | 2(1.4) | 12(11.9) |
| | | 보통 | 72(98.6) | 138(98.6) | 84(83.2) |
| | | 강함 | 1(1.4) | 0(0) | 5(5.0) |
| 선 | 본인 | 여러번 | 7(9.0) | 19(112.6) | 40(38.5) |
| | | 한번 | 71(91.0) | 132(87.4) | 64(61.5) |
| | 어머니 | 여러번 | 7(8.9) | 19(13.0) | 43(41.3) |
| | | 한번 | 72(91.1) | 127(87.0) | 61(58.7) |
| | 아버지 | 여러번 | 6(8.2) | 21(15.0) | 42(41.6) |
| | | 한번 | 67(91.8) | 119(85.0) | 59(58.4) |

* $P<05$, ** $P<01$, *** $P<001$

2. 지적개방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지적개방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지적개방의 수준에 따라 얼굴, 얼굴표정, 눈, 자세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에서는 자신($\chi^2=16.11$, $p<05$)과 어머니($\chi^2=18.53$, $p<05$)의 표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신과 어머니 모두 지적개방성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얼굴내부 표현을 생략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지적개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얼굴내부를 생략없이 다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정상집단에서는 눈, 코, 입만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얼굴표정에서는 어머니의 표정($\chi^2=13.3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어머니의 표정을 우호적인 모습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정상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호적인 비율이 더 높았다. 지적개방이 높은 집단에서는 얼굴내부모습을 생략한 사람이 없었으나, 지적개방이 낮은 집단에서는 12.5%정도가 내부표현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의 표현에서는 자신($\chi^2=10.58$, $p<05$)과 어머니($\chi^2=10.68$, $p<05$)의 눈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눈을 강조하지 않은 표현이 가장 높았고, 눈을 강조하는 비율은 정상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지적개방이 낮은 집단이 생략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세에서는 자신($\chi^2=13.33$, $p<01$), 어머니($\chi^2=11.28$, $p<01$), 아버지($\chi^2=19.71$,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적개방이 낮은 집단은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

았고, 정상집단에서는 경직된 비율과 경직되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지적개방이 높은 집단에서는 인물상을 경직되지 않게 표현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 지적개방성과 인물상의 특징

| 지적개방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필압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12(13.5) | 6(4.5) | 1(2.0) |
| | | 눈만 있음 | 2(2.2) | 4(3.0) | 2(4.1) |
| | | 눈, 코(입) | 26(29.2) | 29(22.0) | 9(18.4) |
| | | 눈, 코, 입 | 27(30.3) | 55(41.7) | 16(32.7)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11(11.5) | 8(6.1) | 0(0) |
| | | 눈만 있음 | 3(3.1) | 3(2.3) | 5(10.0) |
| | | 눈, 코(입) | 26(27.1) | 29(22.0) | 10(20.0) |
| | | 눈, 코, 입 | 33(34.4) | 57(43.2) | 15(30.0)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8(8.8) | 10(7.9) | 1(2.0) |
| | | 눈만 있음 | 1(1.1) | 3(2.4) | 4(8.0) |
| | | 눈, 코(입) | 26(28.6) | 22(17.5) | 10(20.0) |
| | | 눈, 코, 입 | 28(30.8) | 46(36.5) | 17(34.0) |
| 선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11(12.4) | 6(4.5) | 1(2.0) |
| | | 비우호적 | 3(3.4) | 3(2.3) | 1(2.0) |
| | | 무표정 | 27(30.3) | 37(28.0) | 18(36.7) |
| | | 우호적 | 48(53.9) | 86(65.2) | 29(59.2)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12(12.5) | 8(6.1) | 0(0) |
| | | 비우호적 | 4(4.2) | 3(2.3) | 2(22.2) |
| | | 무표정 | 29(30.2) | 34(25.8) | 21(42.0) |
| | | 우호적 | 51(53.1) | 87(65.9) | 27(54.0)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8(8.8) | 10(7.9) | 1(2.0) |
| | | 비우호적 | 5(5.5) | 2(1.6) | 4(8.0) |
| | | 무표정 | 33(36.6) | 31(24.6) | 18(36.0) |
| | | 우호적 | 45(49.5) | 83(65.9) | 27(54.0) |
| 눈 | 자신 | 생략 | 11(12.4) | 8(6.1) | 0(0) |
| | | 강조 | 10(11.2) | 19(14.4) | 3(6.1) |
| | | 강조없음 | 68(76.4) | 105(79.5) | 46(93.9) |
| | 어머니 | 생략 | 12(12.5) | 8(6.1) | 0(0) |
| | | 강조 | 11(11.5) | 23(17.4) | 5(10.0) |
| | | 강조없음 | 73(76.0) | 101(76.5) | 45(90.0) |
| | 아버지 | 생략 | 8(8.8) | 11(8.7) | 1(2.0) |
| | | 강조 | 10(11.0) | 20(15.9) | 2(6.0) |
| | | 강조없음 | 73(80.2) | 95(75.4) | 46(92.0) |

| 지적개방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입 | 자신 | 생략 | 14(15.6) | 11(8.3) | 2(4.1) | $\chi^2=6.26$ df=4 |
| | | 강조 | 9(10.0) | 11(8.3) | 3(6.1) | |
| | | 강조없음 | 67(74.4) | 111(83.5) | 44(89.8) | |
| | 어머니 | 생략 | 16(16.7) | 13(9.8) | 3(6.0) | $\chi^2=5.50$ df=4 |
| | | 강조 | 9(9.4) | 14(10.6) | 3(6.0) | |
| | | 강조없음 | 71(74.0) | 105(79.5) | 44(88.0) | |
| | 아버지 | 생략 | 13(14.3) | 13(10.4) | 2(4.0) | $\chi^2=4.49$ df=4 |
| | | 강조 | 8(8.8) | 12(9.6) | 3(6.0) | |
| | | 강조없음 | 70(76.9) | 100(80.0) | 45(90.0) | |
| 신체완성도 | 자신 | 머리 | 4(3.5) | 10(6.6) | 7(12.7) | $\chi^2=15.40*$ df=6 |
| | | 몸통까지 | 22(19.3) | 17(11.2) | 10(18.2) | |
| | | 다리까지 | 25(21.9) | 18(11.8) | 7(12.7) | |
| | | 발까지 | 63(55.3) | 107(70.4) | 31(56.4) | |
| | 어머니 | 머리 | 7(6.2) | 4(2.7) | 3(5.7) | $\chi^2=8.72$ df=6 |
| | | 몸통까지 | 19(16.8) | 14(9.4) | 9(17.0) | |
| | | 다리까지 | 21(18.6) | 22(14.8) | 6(11.3) | |
| | | 발까지 | 66(58.4) | 109(73.2) | 35(66.0) | |
| | 아버지 | 머리 | 3(2.8) | 5(3.5) | 3(5.9) | $\chi^2=5.61$ df=6 |
| | | 몸통까지 | 20(18.3) | 16(11.2) | 7(13.7) | |
| | | 다리까지 | 16(14.7) | 15(10.5) | 8(15.7) | |
| | | 발까지 | 70(64.2) | 107(74.8) | 33(64.7) | |
| 손 | 자신 | 생략 | 15(12.9) | 17(11.0) | 11(19.6) | $\chi^2=10.78$ df=6 |
| | | 감춰짐 | 24(20.7) | 33(21.3) | 5(8.9) | |
| | | 있다 | 55(47.4) | 59(38.1) | 23(41.1) | |
| | | 강조 | 22(19.0) | 46(29.7) | 17(30.4) | |
| | 어머니 | 생략 | 19(16.4) | 14(34.1) | 8(14.3) | $\chi^2=9.11$ df=6 |
| | | 감춰짐 | 24(20.7) | 32(47.1) | 12(21.4) | |
| | | 있다 | 52(44.8) | 59(38.1) | 23(41.1) | |
| | | 강조 | 21(18.1) | 50(32.3) | 13(23.2) | |
| 아버지 | 생략 | 22(19.0) | 22(14.3) | 12(21.4) | $\chi^2=6.80$ df=6 | |
| | 감춰짐 | 27(23.3) | 29(18.8) | 8(14.3) | | |
| | 있다 | 48(41.4) | 61(39.6) | 22(39.3) | | |
| | 강조 | 19(16.4) | 42(27.3) | 14(25.0) | | |
| 자세 | 자신 | 경직 | 80(70.2) | 84(55.3) | 23(41.8) | $\chi^2=13.33**$ df=2 |
| | | 경직 없음 | 34(29.8) | 68(44.7) | 32(58.2) | |
| | 어머니 | 경직 | 65(57.5) | 67(45.0) | 16(30.2) | $\chi^2=11.28**$ df=2 |
| | | 경직 없음 | 48(42.5) | 82(55.0) | 37(69.8) | |
| | 아버지 | 경직 | 76(69.7) | 69(48.6) | 18(35.3) | $\chi^2=19.71***$ df=2 |
| | | 경직 없음 | 33(30.3) | 73(51.4) | 33(64.7) | |

| 지적개방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 입 | 자신 | 3번이상 | 1(9) | 0(0) | 0(0) | $\chi^2=2.14$ df=4 | |
| | | 1-2번 | 20(17.5) | 23(15.1) | 9(16.4) | | |
| | | 흔적없음 | 93(81.6) | 129(84.9) | 46(83.6) | | |
| | 어머니 | 3번이상 | 1(9) | 0(0) | 0(0) | $\chi^2=3.07$ df=4 | |
| | | 1-2번 | 18(15.9) | 17(11.4) | 8(15.1) | | |
| | | 흔적없음 | 94(83.2) | 132(88.6) | 45(84.9) | | |
| | 아버지 | 3번이상 | 1(9) | 1(7) | 0(0) | $\chi^2=1.60$ df=4 | |
| | | 1-2번 | 17(15.6) | 18(12.6) | 5(12.5) | | |
| | | 흔적없음 | 91(83.5) | 124(86.7) | 46(90.2) | | |
| 필압 | 자신 | 약함 | 7(6.1) | 6(3.9) | 1(1.8) | $\chi^2=2.52$ df=4 | |
| | | 보통 | 105(92.1) | 141(92.8) | 53(96.4) | | |
| | | 강함 | 2(1.8) | 5(3.3) | 1(1.8) | | |
| | 어머니 | 약함 | 6(5.3) | 6(4.0) | 1(1.9) | $\chi^2=1.35$ df=4 | |
| | | 보통 | 105(92.9) | 139(93.3) | 51(96.2) | | |
| | | 강함 | 2(1.8) | 4(2.7) | 1(1.9) | | |
| | 아버지 | 약함 | 6(5.5) | 6(4.2) | 1(2.0) | $\chi^2=1.18$ df=4 | |
| | | 보통 | 101(92.7) | 135(94.4) | 49(96.1) | | |
| | | 강함 | 2(1.8) | 2(1.4) | 1(2.0) | | |
| | 선 | 자신 | 여러번 | 28(24.6) | 32(21.1) | 6(10.9) | $\chi^2=4.28$ df=2 |
| | | | 한번 | 86(75.4) | 120(78.9) | 49(89.1) | |
| | | 어머니 | 여러번 | 29(25.7) | 33(22.0) | 6(11.3) | $\chi^2=4.43$ df=2 |
| 한번 | | | 84(74.3) | 117(78.0) | 47(88.7) | | |
| 아버지 | | 여러번 | 26(23.9) | 34(23.8) | 8(15.7) | $\chi^2=1.61$ df=2 | |
| | | 한번 | 83(76.1) | 109(76.2) | 43(84.3) | | |

* $P<.05$, ** $P<.01$, *** $P<.001$

3. 외향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외향성 수준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지적개방의 수준에 따라 얼굴표정, 눈, 손, 자세, 필압, 선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에서는 어머니의 표정($\chi^2=13.2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어머니의 표정을 우호적인 모습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외향성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그리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정상집단과 외향성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 얼굴을 우호적으로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눈의 표현에서는 자신($\chi^2=13.50, p<.05$)의 눈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눈을 강조하지 않은 표현이 가장 높았으

며, 외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눈을 강조하여 그리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손에서는 어머니($\chi^2=12.6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향성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손을 감추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정상집단과 외향성이 높은 집단은 외향성이 낮은 집단보다 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세에서는 자신($\chi^2=20.77, p<.001$), 어머니($\chi^2=15.46, p<.001$), 아버지($\chi^2=27.76,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향성이 낮은 집단은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상집단에서는 경직된 비율과 경직되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인물상을 경직되지 않게 표현하는 비율이 높았다.

필압에서는 자신($\chi^2=10.1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필압이 보통인 경우가 많았으나 외향성이 낮은 집단이 타 집단보다 필압이 약한 비율이 높았다.

선에서는 자신($\chi^2=15.39, p<.001$), 어머니($\chi^2=12.10, p<.01$), 아버지($\chi^2=13.33, p<.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향성이 낮은 집단은 선을 여러 번에 걸쳐 긋는 경우가 타 집단보다 많았으며, 정상집단과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외향성이 낮은 집단보다 선을 한번에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표 4> 외향성과 인물상의 특징

| 외향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5(8.6) | 11(7.9) | 4(5.6) | $\chi^2=9.94$ df=8 |
| | 눈만 있음 | 2(3.4) | 4(2.9) | 1(1.4) | |
| | 눈, 코(입) | 22(37.9) | 32(23.0) | 13(18.3) | |
| | 눈, 코, 입 | 15(25.9) | 53(38.1) | 28(39.4) | |
| | 눈,코 입,귀 | 14(24.1) | 39(28.1) | 25(35.2)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5(7.7) | 13(8.8) | 2(3.0) | $\chi^2=7.34$ df=8 |
| | 눈만 있음 | 4(6.2) | 5(3.4) | 3(4.5) | |
| | 눈, 코(입) | 19(29.2) | 35(23.6) | 14(21.2) | |
| | 눈, 코, 입 | 21(32.3) | 59(39.9) | 23(34.8) | |
| | 눈,코 입,귀 | 16(24.6) | 36(24.3) | 24(36.4)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4(6.3) | 12(9.0) | 4(6.1) | $\chi^2=4.63$ df=8 |
| | 눈만 있음 | 2(3.2) | 4(3.0) | 2(3.0) | |
| | 눈, 코(입) | 18(28.6) | 29(21.6) | 10(15.2) | |
| | 눈, 코, 입 | 18(28.6) | 46(34.3) | 25(37.9) | |
| | 눈,코 입,귀 | 21(33.3) | 43(32.1) | 25(37.9) | |
| 얼굴표정 | 얼굴내부없음 | 5(8.6) | 11(7.9) | 4(5.6) | $\chi^2=9.00$ df=6 |
| | 비우호적 | 4(6.9) | 3(2.2) | 1(1.4) | |
| | 무표정 | 21(36.2) | 40(28.8) | 16(22.5) | |
| | 우호적 | 28(48.3) | 85(61.2) | 50(70.4) | |

| 외향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5(7.7) | 14(9.5) | 2(3.0) | $\chi^2=13.20^*$ df=6 |
| | 비우호적 | 5(7.7) | 2(1.4) | 3(4.5) | |
| | 무표정 | 26(40.0) | 41(27.7) | 18(27.3) | |
| | 우호적 | 29(44.6) | 91(61.5) | 43(65.2)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4(6.3) | 12(9.0) | 4(6.1) | $\chi^2=12.10$ df=6 |
| | 비우호적 | 4(6.3) | 7(5.2) | 2(3.0) | |
| | 무표정 | 29(46.0) | 35(26.1) | 16(24.2) | |
| | 우호적 | 26(41.3) | 80(59.7) | 44(66.7) | |
| 자신 | 생략 | 5(8.6) | 12(8.6) | 3(4.2) | $\chi^2=13.50^{**}$ df=4 |
| | 강조 | 14(24.1) | 12(8.6) | 5(7.0) | |
| | 강조없음 | 39(67.2) | 115(82.7) | 63(88.7) | |
| 어머니 | 생략 | 5(7.7) | 14(9.5) | 2(3.0) | $\chi^2=3.50$ df=4 |
| | 강조 | 11(16.9) | 18(12.2) | 10(15.2) | |
| | 강조없음 | 49(75.4) | 116(78.4) | 54(81.8) | |
| 아버지 | 생략 | 4(6.3) | 13(9.7) | 4(6.1) | $\chi^2=4.59$ df=4 |
| | 강조 | 12(19.0) | 13(9.7) | 7(10.6) | |
| | 강조없음 | 47(74.6) | 108(80.6) | 55(83.3) | |
| 자신 | 생략 | 8(13.6) | 15(10.7) | 4(5.6) | $\chi^2=4.58$ df=4 |
| | 강조 | 7(11.9) | 14(10.0) | 4(5.6) | |
| | 강조없음 | 44(74.6) | 111(79.3) | 63(88.7) | |
| 어머니 | 생략 | 11(16.9) | 19(12.8) | 4(6.1) | $\chi^2=6.17$ df=4 |
| | 강조 | 6(9.2) | 18(12.2) | 4(6.1) | |
| | 강조없음 | 48(73.8) | 111(75.0) | 58(87.9) | |
| 아버지 | 생략 | 8(12.7) | 14(10.5) | 5(7.6) | $\chi^2=1.58$ df=4 |
| | 강조 | 7(11.1) | 12(9.0) | 5(7.6) | |
| 본인 | 머리 | 5(6.7) | 9(5.4) | 7(9.0) | $\chi^2=7.28$ df=6 |
| | 몸통까지 | 17(22.7) | 21(12.7) | 10(12.8) | |
| | 다리까지 | 14(18.7) | 28(16.9) | 10(12.8) | |
| 신체완성도 | 발까지 | 39(52.0) | 108(65.1) | 51(65.4) | $\chi^2=5.49$ df=6 |
| | 머리 | 4(5.3) | 9(5.5) | 3(4.0) | |
| | 몸통까지 | 14(18.7) | 17(10.3) | 9(12.0) | |
| 아버지 | 다리까지 | 15(20.0) | 25(15.2) | 11(14.7) | $\chi^2=3.04$ df=6 |
| | 발까지 | 42(56.0) | 114(69.1) | 52(69.3) | |
| | 머리 | 3(4.1) | 7(4.5) | 2(2.7) | |
| | 몸통까지 | 14(18.9) | 21(13.6) | 8(11.0) | |
| 아버지 | 다리까지 | 8(10.8) | 23(14.9) | 10(13.7) | $\chi^2=3.04$ df=6 |
| | 발까지 | 49(66.2) | 103(66.9) | 53(72.6) | |

| 외향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자신 | 생략 | 12(15.4) | 22(13.0) | 9(11.4) | $\chi^2=8.80$ df=6 | |
| | 감취짐 | 19(24.4) | 25(14.8) | 17(21.5) | | |
| | 있다 | 35(44.9) | 73(43.2) | 29(36.7) | | |
| | 강조 | 12(15.4) | 49(29.0) | 24(30.4) | | |
| 어머니 | 생략 | 10(12.8) | 21(12.4) | 10(12.7) | $\chi^2=12.65^*$ df=6 | |
| | 감취짐 | 22(28.2) | 31(18.3) | 13(16.5) | | |
| | 있다 | 37(47.4) | 68(40.2) | 30(38.0) | | |
| | 강조 | 9(11.5) | 49(29.0) | 26(32.9) | | |
| 아버지 | 생략 | 9(9(11.7) | 35(20.7) | 13(16.5) | $\chi^2=11.68$ df=6 | |
| | 감취짐 | 22(28.6) | 32(18.9) | 11(13.9) | | |
| | 있다 | 35(45.5) | 63(37.3) | 32(40.5) | | |
| | 강조 | 11(14.3) | 39(23.1) | 23(29.1) | | |
| 자세 | 본인 | 경직 | 58(77.3) | 96(57.8) | 32(41.0) | $\chi^2=20.77^{***}$ df=2 |
| | | 경직 않음 | 17(22.7) | 70(42.2) | 46(59.0) | |
| | 어머니 | 경직 | 47(62.7) | 76(46.1) | 23(30.7) | $\chi^2=15.46^{***}$ df=2 |
| | | 경직 않음 | 28(37.3) | 89(53.9) | 52(69.3) | |
| | 아버지 | 경직 | 54(73.0) | 86(56.2) | 22(30.1) | $\chi^2=27.76^{***}$ df=2 |
| | | 경직 않음 | 20(27.0) | 67(43.8) | 51(69.9) | |
| 지움 | 본인 | 3번이상 | 0(0) | 1(6) | 0(0) | $\chi^2=7.63$ df=4 |
| | | 1-2번 | 20(26.7) | 22(13.3) | 12(15.4) | |
| | | 흔적없음 | 55(73.3) | 143(86.1) | 66(84.6) | |
| | 어머니 | 3번이상 | 0(0) | 1(6) | 0(0) | $\chi^2=3.98$ df=4 |
| | | 1-2번 | 15(20.0) | 19(11.5) | 10(13.3) | |
| | | 흔적없음 | 60(80.0) | 145(87.9) | 65(86.7) | |
| | 아버지 | 3번이상 | 0(0) | 1(6) | 0(0) | $\chi^2=2.40$ df=4 |
| | | 1-2번 | 12(16.2) | 21(13.6) | 7(9.6) | |
| | | 흔적없음 | 62(83.8) | 132(85.7) | 66(90.4) | |
| 판 | 본인 | 약함 | 8(10.7) | 5(3.0) | 1(1.3) | $\chi^2=10.10^*$ df=4 |
| | | 보통 | 65(86.7) | 157(94.6) | 76(97.4) | |
| | | 강함 | 2(2.7) | 4(2.4) | 1(1.3) | |
| | 어머니 | 약함 | 7(9.3) | 5(3.0) | 2(2.7) | $\chi^2=6.01$ df=4 |
| | | 보통 | 66(88.0) | 157(95.2) | 72(96.0) | |
| | | 강함 | 2(2.7) | 3(1.8) | 1(1.3) | |
| | 아버지 | 약함 | 7(9.5) | 5(3.2) | 2(2.7) | $\chi^2=5.91$ df=4 |
| | | 보통 | 65(27.8) | 147(95.5) | 70(95.9) | |
| | | 강함 | 2(2.7) | 2(1.3) | 1(1.4) | |

| 외향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본인 | 여러번 | 27(36.0) | 30(18.1) | 9(11.5) | $\chi^2=15.39^{***}$ df=2 |
| | 한번 | 48(64.0) | 136(81.9) | 69(88.5) | |
| 어머니 | 여러번 | 27(35.5) | 32(19.4) | 10(13.3) | $\chi^2=12.10^{**}$ df=2 |
| | 한번 | 49(64.5) | 133(80.6) | 65(86.7) | |
| 아버지 | 여러번 | 28(37.8) | 30(19.5) | 10(13.7) | $\chi^2=13.33^{**}$ df=2 |
| | 한번 | 46(62.2) | 124(80.5) | 63(86.3) | |

* $P<.05$, ** $P<.01$, *** $P<.001$

4. 친화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친화성 수준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지적개발의 수준에 따라 지움, 선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움에서는 어머니($\chi^2=9.6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하여 지움 흔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움 경우가 가정 적었다.

선에서는 아버지($\chi^2=6.5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화성이 낮은 집단은 아버지를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정상집단과 친화성이 높은 집단은 여러 번에 걸쳐 아버지를 표현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 친화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 친화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3(4.1) | 10(7.4) | 8(11.0) | $\chi^2=10.53$ df=8 |
| | 눈만 있음 | 0(0) | 6(4.4) | 2(2.7) | |
| | 눈, 코(입) | 17(23.3) | 38(28.1) | 13(17.8) | |
| | 눈, 코, 입 | 30(41.1) | 40(29.6) | 30(41.1) | |
| 어머니 | 눈,코,입, 귀 | 23(31.5) | 41(30.4) | 20(27.4) | $\chi^2=9.64$ df=8 |
| | 얼굴내부없음 | 3(4.2) | 11(7.7) | 6(7.9) | |
| | 눈만 있음 | 1(1.4) | 5(3.5) | 6(7.9) | |
| | 눈, 코(입) | 15(20.8) | 41(28.7) | 13(17.1) | |
| | 눈, 코, 입 | 31(43.1) | 49(34.3) | 29(38.2) | |
| 아버지 | 눈,코,입, 귀 | 22(30.6) | 37(25.9) | 22(28.9) | $\chi^2=5.99$ df=8 |
| | 얼굴내부없음 | 5(7.4) | 8(5.8) | 7(9.9) | |
| | 눈만 있음 | 0(0) | 6(4.4) | 2(2.8) | |
| | 눈, 코(입) | 15(22.1) | 33(24.1) | 12(16.9) | |
| | 눈, 코, 입 | 26(38.2) | 43(31.4) | 24(33.8) | |
| 눈,코,입, 귀 | 22(32.4) | 47(34.3) | 26(36.6) | | |

| | | 친화성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일곱표정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3(4.1) | 9(6.7) | 8(11.0) | $\chi^2=6.90$ df=6 |
| | | 비우호적 | 3(4.1) | 3(2.2) | 2(2.7) | |
| | | 무표정 | 16(21.9) | 46(34.1) | 21(28.8) | |
| | | 우호적 | 51(69.9) | 77(57.0) | 42(57.5) |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3(4.2) | 12(8.4) | 6(7.9) | $\chi^2=5.59$ df=6 |
| | | 비우호적 | 2(2.8) | 7(4.9) | 2(2.6) | |
| | | 무표정 | 17(23.6) | 47(32.9) | 24(31.6) | |
| | | 우호적 | 50(69.4) | 77(53.8) | 44(57.9) |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5(7.4) | 8(5.8) | 7(9.9) | $\chi^2=10.84$ df=6 |
| | | 비우호적 | 1(1.5) | 11(8.0) | 1(1.4) | |
| | | 무표정 | 18(26.5) | 48(35.0) | 19(26.8) | |
| | | 우호적 | 44(64.7) | 70(51.1) | 44(62.0) | |
| 눈 | 자신 | 생략 | 3(4.1) | 11(8.1) | 7(9.6) | $\chi^2=2.14$ df=4 |
| | | 강조 | 10(13.7) | 14(10.4) | 8(11.0) | |
| | | 강조없음 | 60(82.2) | 110(81.5) | 58(79.5) | |
| | 어머니 | 생략 | 3(4.2) | 12(8.4) | 6(7.9) | $\chi^2=2.38$ df=4 |
| | | 강조 | 12(16.7) | 20(14.0) | 8(10.5) | |
| | | 강조없음 | 57(79.2) | 111(77.6) | 62(81.6) | |
| 아버지 | 생략 | 5(7.4) | 9(6.6) | 7(9.9) | $\chi^2=.88$ df=4 | |
| | 강조 | 9(13.2) | 16(11.7) | 9(12.7) | | |
| | 강조없음 | 54(79.4) | 112(81.8) | 55(77.5) | | |
| 입 | 자신 | 생략 | 3(4.1) | 16(11.7) | 10(13.7) | $\chi^2=7.42$ df=4 |
| | | 강조 | 10(13.7) | 8(5.8) | 7(9.6) | |
| | | 강조없음 | 60(82.2) | 113(82.5) | 56(76.7) | |
| | 어머니 | 생략 | 7(9.7) | 18(12.6) | 10(13.2) | $\chi^2=.95$ df=4 |
| | | 강조 | 8(11.1) | 12(8.4) | 8(10.5) | |
| | | 강조없음 | 57(79.2) | 113(79.0) | 58(76.3) | |
| | 아버지 | 생략 | 7(10.3) | 16(11.8) | 6(8.5) | $\chi^2=2.57$ df=4 |
| | | 강조 | 7(10.3) | 9(6.6) | 9(12.7) | |
| | | 강조없음 | 54(79.4) | 111(81.6) | 56(78.9) | |
| 신체 | 자신 | 머리 | 4(5.1) | 12(7.2) | 6(6.7) | $\chi^2=2.45$ df=6 |
| | | 몸통까지 | 11(14.1) | 21(12.7) | 17(19.1) | |
| | | 다리까지 | 12(15.4) | 26(15.7) | 14(15.7) | |
| | | 발까지 | 51(65.4) | 107(64.5) | 52(58.4) | |
| | 어머니 | 머리 | 3(3.9) | 8(4.9) | 5(5.7) | $\chi^2=4.38$ df=6 |
| | | 몸통까지 | 12(15.6) | 16(9.8) | 14(16.1) | |
| | | 다리까지 | 10(13.0) | 25(15.2) | 16(18.4) | |
| | | 발까지 | 52(67.5) | 115(70.1) | 52(59.8) | |

| | | 친화성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신체 | 아버지 | 머리 | 1(1.4) | 6(3.7) | 5(6.2) | $\chi^2=5.94$ df=6 |
| | | 몸통까지 | 12(16.7) | 17(10.6) | 15(18.5) | |
| | | 다리까지 | 10(13.9) | 22(13.7) | 10(12.3) | |
| | | 발까지 | 49(68.1) | 116(72.0) | 51(63.0) | |
| 자신 | 생략 | 7(8.9) | 24(14.1) | 13(14.3) | $\chi^2=3.55$ df=6 | |
| | 감취짐 | 17(21.5) | 30(17.6) | 16(17.6) | | |
| | 있다 | 31(39.2) | 76(44.7) | 36(39.6) | | |
| | 강조 | 24(30.4) | 40(23.5) | 26(28.6) | | |
| 어머니 | 생략 | 7(8.9) | 23(13.5) | 12(13.2) | $\chi^2=3.40$ df=6 | |
| | 감취짐 | 19(24.1) | 32(18.8) | 18(19.8) | | |
| | 있다 | 30(38.0) | 75(44.1) | 35(38.5) | | |
| | 강조 | 23(29.1) | 40(23.5) | 26(28.6) | | |
| 아버지 | 생략 | 11(14.1) | 31(18.2) | 17(18.7) | $\chi^2=6.74$ df=6 | |
| | 감취짐 | 14(17.9) | 36(21.2) | 16(17.6) | | |
| | 있다 | 32(41.0) | 73(42.9) | 31(34.1) | | |
| | 강조 | 21(26.9) | 30(17.6) | 27(29.7) | | |
| 자신 | 경직 | 45(57.7) | 99(59.6) | 47(52.8) | $\chi^2=1.11$ df=2 | |
| | 경직 없음 | 33(42.3) | 67(40.4) | 42(47.2) | | |
| 어머니 | 경직 | 35(45.5) | 81(49.4) | 36(41.4) | $\chi^2=1.50$ df=2 | |
| | 경직 없음 | 42(54.5) | 83(50.6) | 51(58.6) | | |
| 아버지 | 경직 | 34(47.2) | 91(56.9) | 43(53.1) | $\chi^2=1.88$ df=2 | |
| | 경직 없음 | 38(52.8) | 69(43.1) | 38(46.9) | | |
| 지움 | 자신 | 3번이상 | 0(0) | 0(0) | 1(1.1) | $\chi^2=3.01$ df=4 |
| | | 1-2번 | 12(15.4) | 27(16.3) | 16(18.0) | |
| | | 없음 | 66(84.6) | 139(83.7) | 72(80.9) | |
| | 어머니 | 3번이상 | 0(0) | 0(0) | 1(1.1) | $\chi^2=9.64*$ df=4 |
| | | 1-2번 | 12(15.6) | 15(9.1) | 18(20.7) | |
| | | 없음 | 65(84.4) | 149(90.9) | 68(78.2) | |
| 아버지 | 3번이상 | 0(0) | 0(0) | 2(2.5) | $\chi^2=7.81$ df=4 | |
| | 1-2번 | 12(16.7) | 17(10.6) | 12(14.8) | | |
| | 없음 | 60(83.3) | 144(89.4) | 67(82.7) | | |
| 자신 | 약함 | 1(1.3) | 10(6.0) | 3(3.4) | $\chi^2=4.10$ df=4 | |
| | 보통 | 74(94.9) | 153(92.2) | 83(93.3) | | |
| | 강함 | 3(3.8) | 3(1.8) | 3(3.4) | | |
| 어머니 | 약함 | 1(1.3) | 10(6.1) | 3(3.4) | $\chi^2=3.73$ df=4 | |
| | 보통 | 74(96.1) | 151(92.1) | 81(93.1) | | |
| | 강함 | 2(2.6) | 3(1.8) | 3(3.4) | | |
| 아버지 | 약함 | 1(1.4) | 10(6.2) | 3(3.7) | $\chi^2=3.58$ df=4 | |
| | 보통 | 69(95.8) | 149(92.5) | 76(93.8) | | |
| | 강함 | 2(2.8) | 2(1.2) | 2(2.5) | | |

| 친화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선 | 자신 | 여러번 | 11(14.1) | 34(20.5) | 21(23.6) | $\chi^2=2.45$ df=2 |
| | | 한번 | 67(85.9) | 132(79.5) | 68(76.4) | |
| | 어머니 | 여러번 | 11(14.3) | 36(22.0) | 22(25.0) | $\chi^2=3.03$ df=2 |
| | | 한번 | 66(85.7) | 128(78.0) | 66(75.0) | |
| | 아버지 | 여러번 | 9(12.5) | 36(22.4) | 24(29.6) | $\chi^2=6.55^*$ df=2 |
| | | 한번 | 63(87.5) | 125(77.6) | 57(70.4) | |

* $P<.05$, ** $P<.01$, *** $P<.001$

5. 성실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성실성 수준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성실성의 수준에 따라 얼굴표정, 자세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에서는 어머니의 표정($\chi^2=15.0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실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우호적인 모습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성실성이 낮거나 정상집단에서는 성실성이 높은 집단보다 무표정하게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자세에서는 자신($\chi^2=11.29$, $p<.001$), 어머니($\chi^2=14.27$, $p<.001$), 아버지($\chi^2=9.96$,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실성이 낮은 집단은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상집단에서는 경직된 비율과 경직되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성실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지 않게 표현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6> 성실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

| 성실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얼굴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9(7.1) | 10(8.1) | 2(8.3) | $\chi^2=13.07$ df=8 |
| | | 눈만 있음 | 5(3.9) | 2(1.6) | 1(4.2) | |
| | | 눈, 코(입) | 41(32.3) | 25(20.2) | 1(4.2) | |
| | | 눈, 코, 입 | 38(29.9) | 48(38.7) | 12(50.0) | |
| | | 눈,코,입,귀 | 34(26.8) | 39(31.5) | 8(33.3) |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10(7.8) | 9(7.0) | 1(3.7) | $\chi^2=7.60$ df=8 |
| | | 눈만 있음 | 5(3.9) | 4(3.1) | 2(7.4) | |
| | | 눈, 코(입) | 38(29.7) | 27(21.1) | 3(11.1) | |
| | | 눈, 코, 입 | 43(33.6) | 50(39.1) | 13(48.1) | |
| | | 눈,코,입,귀 | 32(25.0) | 38(29.7) | 8(29.6) | |

| 성실성 |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 얼굴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11(8.9) | 7(5.7) | 2(8.7) | $\chi^2=2.65$ df=8 |
| | | 눈만 있음 | 3(2.4) | 3(2.4) | 1(4.3) | |
| | | 눈, 코(입) | 29(23.6) | 27(22.0) | 3(13.0) | |
| | | 눈, 코, 입 | 40(32.5) | 42(34.1) | 9(39.1) | |
| | 자신 | 얼굴내부없음 | 9(7.1) | 10(8.1) | 1(4.2) | $\chi^2=7.51$ df=6 |
| | | 비우호적 | 7(5.5) | 1(8) | 0(0) | |
| | | 무표정 | 36(28.3) | 38(30.6) | 5(20.8) | |
| | 어머니 | 얼굴내부없음 | 11(8.6) | 9(7.0) | 1(3.7) | $\chi^2=15.07^*$ df=6 |
| | | 비우호적 | 6(4.7) | 2(1.6) | 3(11.1) | |
| | | 무표정 | 36(28.1) | 47(36.7) | 2(7.4) | |
| | 아버지 | 얼굴내부없음 | 11(8.9) | 7(5.7) | 2(8.7) | $\chi^2=2.96$ df=6 |
| | | 비우호적 | 8(6.5) | 4(3.3) | 1(4.3) | |
| 무표정 | | 38(30.9) | 38(30.9) | 6(26.1) | | |
| 자신 | 생략 | 11(8.7) | 9(7.3) | 1(4.2) | $\chi^2=2.33$ df=4 | |
| | 강조 | 18(14.2) | 12(9.7) | 2(8.3) | | |
| | 강조없음 | 98(77.2) | 103(83.1) | 21(87.5) | | |
| 어머니 | 생략 | 11(8.6) | 9(7.0) | 1(3.7) | $\chi^2=1.17$ df=4 | |
| | 강조 | 18(14.1) | 19(14.8) | 3(11.1) | | |
| | 강조없음 | 99(77.3) | 100(78.1) | 23(85.2) | | |
| 아버지 | 생략 | 11(8.9) | 8(6.5) | 2(8.7) | $\chi^2=.62$ df=4 | |
| | 강조 | 16(13.0) | 15(12.2) | 3(13.0) | | |
| | 강조없음 | 96(78.0) | 100(81.3) | 18(78.3) | | |
| 자신 | 생략 | 14(10.9) | 13(10.4) | 2(8.3) | $\chi^2=1.14$ df=4 | |
| | 강조 | 13(10.2) | 11(8.8) | 1(4.2) | | |
| | 강조없음 | 101(78.9) | 101(80.8) | 21(87.5) | | |
| 어머니 | 생략 | 20(15.6) | 14(10.9) | 1(3.7) | $\chi^2=5.71$ df=4 | |
| | 강조 | 15(11.7) | 12(9.4) | 1(3.7) | | |
| | 강조없음 | 93(72.7) | 102(79.7) | 25(92.6) | | |
| 아버지 | 생략 | 18(14.6) | 9(7.4) | 2(8.7) | $\chi^2=5.42$ df=4 | |
| | 강조 | 14(11.4) | 10(8.2) | 1(4.3) | | |
| | 강조없음 | 91(74.0) | 103(84.4) | 20(87.0) | | |

| | | 성실성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신체완성도 | 자신 | 머리 | 8(5.2) | 9(6.3) | 4(14.3) | $\chi^2=11.49$ df=6 |
| | | 몸통까지 | 28(18.3) | 19(13.2) | 1(3.6) | |
| | | 다리까지 | 27(17.6) | 23(16.0) | 1(3.6) | |
| | | 발까지 | 90(58.8) | 93(64.6) | 22(78.6) | |
| | 어머니 | 머리 | 7(4.6) | 6(4.3) | 3(10.7) | $\chi^2=5.85$ df=6 |
| | | 몸통까지 | 25(16.6) | 14(9.9) | 2(7.1) | |
| | | 다리까지 | 22(14.6) | 24(17.0) | 4(14.3) | |
| | | 발까지 | 97(64.2) | 97(68.8) | 19(67.9) | |
| | 아버지 | 머리 | 4(2.8) | 5(3.7) | 3(11.1) | $\chi^2=6.12$ df=6 |
| | | 몸통까지 | 23(15.9) | 18(13.3) | 2(7.4) | |
| | | 다리까지 | 19(13.1) | 17(12.6) | 5(18.5) | |
| | | 발까지 | 99(68.3) | 95(70.4) | 17(63.0) | |
| 손 | 자신 | 생략 | 19(12.1) | 19(13.1) | 5(17.2) | $\chi^2=8.01$ df=6 |
| | | 감춰짐 | 38(24.2) | 22(15.2) | 2(6.9) | |
| | | 있다 | 64(40.8) | 62(42.8) | 12(41.4) | |
| | | 강조 | 36(22.9) | 42(29.0) | 10(34.5) | |
| | 어머니 | 생략 | 22(14.0) | 14(9.7) | 5(17.2) | $\chi^2=9.35$ df=6 |
| | | 감춰짐 | 40(25.5) | 26(17.9) | 3(10.3) | |
| | | 있다 | 61(38.9) | 63(43.4) | 10(34.5) | |
| | | 강조 | 34(21.7) | 42(29.0) | 11(37.9) | |
| | 아버지 | 생략 | 26(16.7) | 24(16.6) | 7(24.1) | $\chi^2=4.44$ df=6 |
| | | 감춰짐 | 36(23.1) | 26(17.9) | 4(13.8) | |
| | | 있다 | 62(39.7) | 60(41.4) | 9(31.0) | |
| | | 강조 | 32(20.5) | 35(24.1) | 9(31.0) | |
| 자세 | 자신 | 경직 | 101(66.0) | 76(52.8) | 10(35.7) | $\chi^2=11.29^{**}$ df=2 |
| | | 경직 않음 | 52(34.0) | 68(47.2) | 18(64.3) | |
| | 어머니 | 경직 | 87(57.6) | 55(39.0) | 8(28.6) | $\chi^2=14.27^{**}$ df=2 |
| | | 경직 않음 | 64(42.4) | 86(61.0) | 20(71.4) | |
| | 아버지 | 경직 | 91(62.8) | 67(50.0) | 9(33.3) | $\chi^2=9.96^{**}$ df=2 |
| | | 경직 않음 | 54(37.2) | 67(50.0) | 18(66.7) | |
| 지움 | 자신 | 3번이상 | 1(7) | 0(0) | 0(0) | $\chi^2=2.69$ df=5 |
| | | 1-2번 | 24(15.7) | 28(19.4) | 3(10.7) | |
| | | 흔적없음 | 128(83.7) | 116(80.6) | 25(89.3) | |
| | 어머니 | 3번이상 | 1(7) | 0(0) | 0(0) | $\chi^2=2.93$ df=4 |
| | | 1-2번 | 18(11.9) | 24(17.0) | 3(10.7) | |
| | | 흔적없음 | 132(87.4) | 117(83.0) | 25(89.3) | |
| | 아버지 | 3번이상 | 1(7) | 1(7) | 0(0) | $\chi^2=5.77$ df=4 |
| | | 1-2번 | 24(16.6) | 17(12.6) | 0(0) | |
| | | 흔적없음 | 120(82.8) | 117(86.7) | 27(100.0) | |

| | | 성실성 | 낮은 집단 N (%) | 정상 집단 N (%) | 높은 집단 N (%) | 통계량 |
|----|-----|------|----------------|----------------|----------------|-----------------------|
| 필압 | 자신 | 약함 | 9(5.9) | 4(2.8) | 1(3.6) | $\chi^2=3.90$ df=4 |
| | | 보통 | 141(92.2) | 134(93.1) | 27(96.4) | |
| | | 강함 | 3(2.0) | 6(4.2) | 0(0) | |
| | 어머니 | 약함 | 8(5.3) | 4(2.8) | 2(7.1) | $\chi^2=4.82$ df=4 |
| | | 보통 | 141(93.4) | 131(92.9) | 26(92.9) | |
| | | 강함 | 2(1.3) | 6(4.3) | 0(0) | |
| | 아버지 | 약함 | 8(5.5) | 4(3.0) | 2(7.4) | $\chi^2=3.01$ df=4 |
| | | 보통 | 135(93.1) | 127(94.1) | 25(92.6) | |
| | | 강함 | 2(1.4) | 4(3.0) | 0(0) | |
| 선 | 자신 | 여러 번 | 38(24.8) | 23(16.0) | 5(17.9) | $\chi^2=3.72$ df=2 |
| | | 한번 | 115(75.2) | 121(84.0) | 23(82.1) | |
| | 어머니 | 여러 번 | 39(25.8) | 24(17.0) | 6(20.7) | $\chi^2=3.36$ df=2 |
| | | 한번 | 112(74.2) | 117(83.0) | 23(79.3) | |
| | 아버지 | 여러 번 | 37(25.5) | 26(19.3) | 30(22.2) | $\chi^2=1.57$ df=2 |
| | | 한번 | 108(74.5) | 109(80.7) | 21(77.8) | |

* $P<0.05$, ** $P<0.01$, *** $P<0.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인성(신경증, 지적개방,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에 따라 동적가족화의 인물상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여고생 340명이었으며 5요인 인성검사와 동적가족화를 실시하여 인성에 따른 인물상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의 수준에 따라 얼굴, 얼굴표정, 눈, 입, 신체, 손, 자세, 지움, 필압, 선 등 10가지 하위요인 모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적개방의 수준에 따라 얼굴, 얼굴표정, 눈, 자세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외향성의 수준에 따라 얼굴표정, 눈, 손, 자세, 필압, 선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친화성의 수준에 따라 지움과 선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성실성의 수준에 따라 얼굴표정, 자세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얼굴은 신경증과 지적개방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신경

증 수준이 정상범주에 있는 집단과 지적개방성이 높은 집단인 경우 얼굴내부를 생략하지 않고 다 그리는 비율이 높았으며, 신경증이 높고 지적개방성이 낮은 집단은 얼굴내부 표현의 생략이 많았다.

신경증이 높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며, 지적개방성이 낮은 것은 관심의 폭이 넓지 않고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싫어하는 성향을 나타낸다(박도순 외, 2004). 따라서 신경증이 높고 지적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얼굴을 생략하고 신체 부분을 부적절하게 그린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불안감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대인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피상적이거나 환경과 적절한 접촉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회피반응(최외선, 정현희, 2004; Machover, 1949; Burns & Kaufman, 1972)으로 볼 수도 있다.

얼굴표정은 신경증, 지적개방, 외향성, 성실성과 차이를 보여 인물상의 특성 요인 중 인성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증이 낮고 지적개방성과 외향성이 정상집단이며 성실성이 높은 집단에서 얼굴표정을 우호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많았으며,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 지적개방성, 성실성이 낮은 경우가 타 집단보다 얼굴표정을 무표정하거나 비우호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많았다. 얼굴은 외부 현실세계와의 접촉을 상징하는 것으로 얼굴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움츠러들거나 접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점과 일치한다.

눈은 신경증, 지적개방성, 외향성과 차이가 있었다. 즉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이 낮은 집단에서 눈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눈은 외계와 접촉하는 기관으로 큰 눈은 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며 사회적 의견에 과민한 경향을 나타내는(DiLeo, 1973; 최외선, 정현희, 2004) 것으로 신경증이 높은 경향이 있는 사람이 눈을 강조하여 그린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큰 눈은 외향적인 경향(Machover, 1949)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눈을 강조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눈의 강조는 상호작용에서의 방어적인 태도나 편집증적인 경향(신민섭 외, 2002)을 시사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외향성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이 눈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은 신경증이 정상집단에서는 입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집단에서는 입을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비율이 높았다. 입의 강조는 퇴행적 방어, 공격충동으로 인한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입을 생략하는 것은 타인과 교류하는 데에 갈등이 있거나 움츠러드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의 가능성을 나타내고(Buck, 1948; Machover, 1949; 최외선, 정현희, 2004)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입은 그 사람의 생존과 심리적인 충족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애정을 줄 수 있는 특히 부모와 같은 대상관계에서 갈등이나 결핍을 있음을 나타낸다(신민섭 외, 2002)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

손은 신경증과 외향성과 차이가 있었다. 즉 신경증의 정상집단과 외향성이 높은 집단과 정상집단은 타 집단보다 손을 강조하나,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이 낮은 집단이 손을 생략하거나 감추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손을 감추거나 생략하는 것은 외계와의 접촉이 잘 되지 않고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거나(최외선, 정현희, 2004), 환경에 대한 대처기술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할 가능성(신민섭 외, 2002)을 표현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자세는 신경증, 지적개방성, 외향성, 성실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성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증이 낮고, 지적개방성, 외향성, 성실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지 않게 그리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신경증이 높고 지적개방성, 외향성과 성실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인물상의 자세를 경직되게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경직된 자세는 외부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로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행동장애 청소년 집단이 부동자세나 막대기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연구(박혜련, 김재환, 1992)와 불안군 아동이 어깨를 과장되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영호, 양익홍, 김중술(198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필압은 신경증, 외향성과 차이가 있었다. 즉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이 낮은 집단이 필압이 약하게 나타났다. 필압은 피험자의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압이 약한 것은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유유부단하고 두려움이 많은 불안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Buck, 1948; Machover, 1949)를 지지하며 불안증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에 있거나 우울증의 상태에 있다는(신민섭 외, 2002)점을 반영한다.

선은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과 차이가 있었다. 즉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이 낮으며,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여러 번 걸쳐 인물상을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 번 덧칠을 하여 그린다는 것은 피험자가 자신이 없고 일을 수행할 때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하는(신민섭 외, 2002)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여러 번 덧칠을 하는 것은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도우려는 경향이 있으나 갈등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의존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박도순 외(2004)의 견해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친화성이 높은 경우 아버지의 표현에서 여러 번 덧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갈등상황에서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인성요인 중 신경증은 높은 경우에, 지적개방,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은 경우에 인물상의 표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인물상의 특성은 5요인 인성 중 신경증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나타나 신경증과 인물상의 특성이 가장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물상의 특성 중에서는 얼굴표정과 인물상의 자세가 인성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인성요인과 동적가족화의 인물상의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동적가족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각이나 개인의 인성특성들에 대해 이미 제시되어 있는 해석기준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표준화된 인성검사와 투사검사와의 관계성을 파악한 초기의 연구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에 있어 진단도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림검사의 채점은 2사람이 채점을 하여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구하고 불일치한 부분은 논의를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얼굴내부 표현 및 신체 부분의 강조여부, 표정, 필압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성요인과 동적가족화의 인물상의 특성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동적가족화의 5가지 영역과 인성요인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1월 02일

【참 고 문 헌】

- 강문희·장연집·정정옥(1999).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김갑숙·전영숙(2004). 여고생의 동적가족화(KFD)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 신경증과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 12(2), 197-223.
- 김동연(1998). 동적가족화(KFD)에 나타난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와 가족지각 특성. **미술치료연구**, 5(1), 27-42.
- 김성일·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2(1), 5-27.
- 박도순·하대현·성태제(2003). **5요인 인성검사 요강**.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혜련·김재환(1992). 행동장애청소년의 운동성가족화검사 반응특성.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11, 164-186.
-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민섭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 이봉건 역(1997).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영호·양익홍·김중술(1984).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HTP반응. **정신의학**, 8(11), 374-377.
- 이은경·이기학(2005). 우울과 긍정적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신경증과 외향성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6(2), 325-337.
- 이현지·이운주(2005).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6(1), 197-208.
- 장혁표·제석봉·김정택 역(1995). **가족치료**. 서울: 중앙정성출판사.
- 최선남(1995). **아동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동적가족화에 의한 아동우울의 판별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남·최외선·손현숙(1995).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2(1), 19-35.
- 최선남·최외선(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최외선·김갑숙(1996). 초등학교생의 KFD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3(2), 117-128.
- 최외선·정현희(2004). **동적가족화와 심리진단**. 대구: 중문출판사.
- 최희철·김병석·김지현(2005). 남자대학생의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상담학연구**, 6(1), 61-72.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5). **미술치료이론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출판사.
- 홍경자 저(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학지사.
- Bornstein, R. F. & O'Neill, R. M.(1992). Parental perception and psychopathology. *J. Nerv. Ment. Dis* 180 : 475-483.
- Bowen, M.(1975). Family therapy after twenty years. In S. Arieti, D.X. Freeman, & J. E. Dyrud(Eds.),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 Treat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uck, J. N.(1948). The H-T-P technique: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Monographs*. 4(4), 1-120.
- Burns, R. C. & Kaufman, S. H.(1970). *Kinetic family drawings (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New York: Brunner/Mazal.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New York: Brunner/Mazal.
- DiLeo, J. H.(1973). *Children's drawings as diagnostic aids*. New York: Brunner/Mazel.
-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0-76.
- Knoff, H. & Prout. H. T.(1988). *Kinet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A Handbook*.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Machover, K.(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cGregor, J. P.(1978). *Kinetic family drawing test: A validit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ucky University.
- Sims, C. A.(1974). Kinetic family drawings and the family relations indica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87-88.
- Sobel, H. & Sobel, W.(1976). Discrimination adolescent male delinquents through to use of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91-94.
- 加藤孝正(1987). 動的家族描畫法(KFD) してよる治療. 臨床描畫研究 II. 京都:金剛出版.
- 日比裕泰(1974). 動的家族描畫法(KFD)の 研究(I)-その紹介と 理論的 基礎, 滋賀女子短期大學 研究紀要, II. 79-113.
- 日比裕泰(1985). 動的家族描畫法(KFD). 京都: ナカニシヌ出版.